‘무적함대’ 스페인 16년 만 결승행

2026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전서 프랑스 2-0 완파

‘무적함대’ 스페인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프랑스를 무기력하게 무너뜨리고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스페인은 15일(한국시간) 미국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전에서 미켈 오야르사발의 페널티킥 선제골과 페드로 포로의 쐐기 골을 묶어 프랑스를 2-0으로 제압했다. 사상 첫 우승을 달성했던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6년 만에 4강 무대에 복귀한 스페인은 그 기세를 몰아 결승까지 선착했다.

반면 조별리그부터 6전 전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리던 프랑스는 3회 연속 결승 진출을 목전에 두고 스페인에 무릎을 꿇었다.

경기 초반 팽팽한 압박전이 이어진 가운데 먼저 균형을 깬 쪽은 스페인이었다.

전반 20분 마르크 쿠쿠레야의 크로스를 프랑스 수비수가 걷어내는 과정에서 쇄도하던 라민 야말과 충돌해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키커로 나선 오야르사발이 골문 오른쪽을 향해 강하게 찬 공은 방향을 읽고 몸을 날린 골키퍼 마이크 메냥을 뚫고 골망을 흔들었다.

스페인의 견고한 수비벽에 막혀 공격 전개에 고전한 프랑스는 전반전 슈팅 2개에 그쳤다.

다급해진 프랑스는 반격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스페인이 추가 골을 터뜨리며 점수 차를 벌렸다.

후반 시작 13분 만에 다니 올모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수비진을 무너뜨린 포로가 침착한 오른발 슈팅으로 추가 골을 뽑아냈다.

끌려가던 프랑스는 후반 36분 결정적인 득점 기회마저 놓쳤다.

스페인 골키퍼 우나이 시몬이 공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해 빈 골문을 내줄 뻔했지만, 재빠르게 복귀해 데지레 두에의 슈팅을 막아내며 실점 위기를 넘겼다.

경기는 그대로 스페인의 2-0 완승으로 끝났다. 연합뉴스

15일(한국시간) 열린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승리한 스페인 선수가 그라운드에 주저앉은 프랑스 선수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배드민턴 퀸’ 안세영, 발 부상으로 일본오픈 기권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의 간판 안세영(삼성생명)이 왼쪽 발 통증으로 2026 일본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기권했다.

안세영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일본오픈에 출전해 오쿠하라 노조미(11위·일본)와 16강전을 치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15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안세영은 이번 대회 여자 단식 32강 경기 도중 왼쪽 발 외측 부위에 통증을 느꼈으며, 경기 종료 후에도 상태를 지속해서 점검했으나 결국 이날 대회 기권을 결정했다.

해당 부위는 과거 훈련 및 경기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통증이 발생했던 곳이다.

안세영은 앞서 6월 싱가포르오픈과 인도네시아오픈에서 2주 연속 금메달을 따내 이번 대회 우승도 유력했다. 연합뉴스

제49회 제주도교육감기 전도학생사격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주도사격연맹 제공

제49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기 전도학생사격대회

동여중 대회新 ‘정상’… 박지현 MVP 영예

남중부 단체전 표선중 우승
여고부 단체전 제주여상 정상
남고부 단체전 제주고 우승

에이스 박지현이 맹활약한 제주동여중이 대회신기록으로 제49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기 전도학생사격대회 정상에 올랐다.

지난 11일 제주고 사격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사격연맹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박지현·송윤미·고서희·오시현이 출전한 제주동여중은 여중부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1649점을 합작하며 자신들이 지난해 작성한 1639점을 갈아치우는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했다.

박지현은 개인전에서도 대회 타이기록인 552점으로 2관왕에 오르며 대회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여고부 공기권총 단체전에서는 제주여상(고현지·김현지·지예빈·손민애)이 1663점을 명중하며 1602점에 그친 표선고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여고부 공기권총 개인전에선 고현지가 565점으로 우승과녁을 명중시켰고, 김현지는 2위를 차지하며 제주여상의 저력을 과시했다.

남고부 공기권총 단체전에선 제주고(박인성·이도규·채상운·최서준)가 1607점으로 1위에 올랐고 개인전에서는 경호윤(표선고1)이 551점으로 지난해 중등부 정상에 이어 고등부에서도 다시 우승했다.

남중부 공기권총 단체전은 표선중(이준상·박태경·방시현)이 1547점으로 정상에 올랐고 여자초등부 공기권총에선 신효민(광령초6)이 340점으로 대회 신기록으로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김민재, 새 시즌 뮌헨과 동행할 듯

독일 현지 스포츠 매체
“팔려던 구단 방침 바뀌어”

소속팀 내 입지가 불안한 것으로 전해졌던 축구국가대표 중앙수비수 김민재(29·바이에른 뮌헨)가 구단 방침이 바뀌어 새 시즌에도 동행을 이어간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스카이스포츠 독일판은 15일(한국시간) ‘김민재는 더 이상 뮌헨의 매각 대상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김민재와 관련한 구단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 매체는 “스타 선수들이 즐비한 뮌헨의 중앙 수비진에서 다요 우파메카노와 요나단 타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라면서 “김민재는 사실 뮌헨에서 올여름 이적 가능성이 높은 선수였다. 하지만 이제 구단 내부에서 방침이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연합뉴스

그러면서 “김민재는 당분간 우파메카노와 타의 뒤를 받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뮌헨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정해 현재 김민재는 더 이상 매각 대상 선수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올여름 초대형 제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뮌헨은 김민재와 함께 새 시즌을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재는 2023년 나폴리(이탈리아)에서 이적료 5000만유로(현재 약 848억원)에 뮌헨으로 이적했다. 뮌헨과 계약기간은 2028년까지다.

김민재는 뮌헨에서 지금까지 공식전 116경기에 출전해 5골 3도움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에는 37경기를 뛰면서 1골 1도움의 성적을 냈다.

특히 시즌 막판에 제 기량을 유감없이 보여주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 보였다. 연합뉴스

전세기로 떠나는 편안한 해외여행

★★ 영업배상책임보험 10억 가입 ★★

제주직항전세기
몽골(4박5일)
출발일 : 8/5, 8/9, 8/13, 8/17, 9/23
패키지 1,590,000원
주요일정 몽골 노마닉전통체험, 칭기스칸 마동상, 테를지 국립공원(거북바위, 아리야발 사원) 초원승마, 자이승전망대, 간단사원

제주직항전세기
백두산(연길/3박5일)
출발일 : 7/20, 7/23, 7/26, 7/29, 8/1, 8/4, 8/7
패키지 1,290,000원
주요일정 백두산북파코스(장백폭포,노천온천지대), 서파코스(금강대협곡), 일송정, 윤동주생가

제주직항전세기
중국 장가계(3박5일)
출발일 : 10/8, 10/11, 10/14, 10/17
패키지 1,290,000원
주요일정 보봉호수(유람선포함), 천문산사 + 귀곡잔도+유리잔도, 전신마사지, 황룡동굴, 천문호선쇼, 천자산 케이블카, 원가계 백룡엘리베이터, 72기루, 금편계곡

제주직항전세기
베트남 다낭(3박5일)
출발일 : 11/19, 12/31
패키지 1,290,000원
주요일정 대성당, 67미터 해수관음상(영응사), 미케비치, 마블 마운틴, 투번강 투어, 호이안 옛시가지관광, 바나산(골든 브릿지,고성체험)

2026년도 제주직항 전세기운용 일정
중국
장가계(3박5일)
출발일(8차) : 5/7, 5/10, 5/13, 5/16, 10/8, 10/11, 10/14, 10/17
연길(백두산)(3박5일)
출발일(7차) : 7/20, 7/23, 7/26, 7/29, 8/1, 8/4, 8/7
몽골 울란바토르(4박5일)
출발일(8차) : 6/17, 7/15, 8/5, 8/9, 8/13, 8/17, 9/23
필리핀
마닐라(4박5일)
출발일(9차) : 3/28, 4/1, 4/5, 4/9, 4/13, 12/17, 12/21, 12/25, 12/29
일본
이즈모(돗토리/2박3일) : 7/10
베트남
다낭(3박5일) : 11/19, 12/31

공통사항 · 여행상품 가격 포함내역 : 유류항증료, 공항이용료,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 불포함내역 : 부가세, 가이드 · 기사봉사료, 싱글차지, 매너팁, 선택관광경비, 기타개인비용 · 최소출발인원 10명기준 · 4성(준4성)이상 2인1실 · 기획여행보증보험 2억 가입, 여행자보험 2억가입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전세기 전문여행사 Tourist Information Service 여행정보서비스 T. 064)746-6900 관광사업등록번호 제주-90호 제주시 연북로 92 진현빌딩 1층

에이투 T. 064)742-7990 관광사업등록번호 제주-336 제주시 연북로 92 진현빌딩 1층

» 여행정보서비스 바로가기